

언어네트워크분석을 통해 본 대(對)테러리즘 연구경향*

– 학계와 국가기관의 대(對)테러리즘 관련 학술논문의 시기별 분석 –

The Research Trends of Counter-Terrorism through the Semantic Network Analysis

– The Temporal Analysis of the Research Papers between Academia and State Agencies –

Dae Sung Lee**, Sang Weon Kim***, Sang Il Ryu****

Dong-Eui University, 176 Eomgwang-ro, Busanjin-gu, Busan, Korea

Abstract

This study analysed the research trends of counter-terrorism by synthesizing of academic articles between academia and state agencies through the semantic network analysis. We found some significant results from the analysis. To Sum up, first, “terror” and “terrorism” were used key subject matter between 1981 and 2014. Second, there were discussions about “law” and “institutions” before 2000, and there were activating academic research about “policies” after 2001. Third, while the research focused “reaction” in terms of the response from terror before 2000, the research papers focused “preparedness” in terms of the prevention from terror after 2001. Forth, looking at the differences by the year, “the Olympics” and “Seoul Asian Games” were frequently addressed between 1981 and 1990 regarding of the Seoul Olympic games in 1988 and the Seoul Asian games in 1986. The research related to “World Cup” were increased between 1991 and 2000 for preparing 2002 World cup games. After that, research about “9.11 terror” were radically increased between 2001 and 2010, and the research topics were varied, such as “cyber terror”, “homegrown terrorism”, between 2011 and 2014. Fifth, regarding of policy toward North Korea, research related to the risk of state sponsor terrorism by North Sixth,

* 이 연구는 2014년 한국정책포럼 학술대회 발표논문을 수정·보완하였음을 밝힙니다.

** First author & Corresponding Author. Tel. +82-51-890-2195. E-mail. dorian3145@deu.ac.kr

*** Tel. +82-51-890-2194. E-mail. sangkim@deu.ac.kr

**** Tel. +82-51-890-4291. E-mail. samuel@deu.ac.kr

Submission & Publication Process

Received: Nov. 14, 2014 / Revised: Dec. 2, 2014 / Accepted: Dec. 11, 2014

Korea were main topics before 2000, and after that, these research topics were decreased. regarding of police intervention to counter-terrorism, the research related to the police's role toward counter-terrorism were relative small. However, these research about the police's role for counter-terrorism were consistently increased.

Key words: terror, terrorism, reaction, preparedness, police

국문초록

이 연구는 1981년부터 2014년까지 국회도서관, 한국테러학회, 치안본부, 경찰청, 국가정보원에서 발간하거나 소장하고 있는 대(對)테러리즘 관련 학술논문의 모든 연구주제를 10년 단위로 구분하여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81년부터 2014년까지 “테러”, “테러리즘”이 핵심 연구 주제로 등장하였다. 둘째, 2000년 이전(以前)은 “법·제도” 측면의 논의가 많았고, 2001년 이후(以後)는 “정책” 측면의 학술연구들이 활성화되었다. 셋째, 2000년 이전(以前)의 연구는 사후진압(事後鎮壓) 측면의 “대응(對應)”에 초점이 맞추어졌고, 2001년 이후(以後)는 사전예방(事前豫防) 측면이 강조된 “대비(對備)”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넷째, 시대상을 반영한 연구주제를 살펴보면, 1981-1990년대는 1988년 서울올림픽과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 개최로 인하여 “올림픽”, “아시안게임”과 관련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였고, 1991-2000년대는 2002년 월드컵에 대비(對備)하기 위하여 “월드컵”과 관련된 연구가 증가하였다. 2001-2010년대는 미국 “9.11테러”와 관련된 연구가 급증하였고, 2011-2014년대는 테러리즘과 관련된 연구주제가 “자생테러”, “사이버테러” 등으로 다원화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째, 대북(對北) 관련 연구를 검토해보면, 2000년 이전(以前)의 연구는 북한의 국가지원 테러리즘 위험성에 대한 연구가 다수를 이루었지만, 2001년 이후(以後)는 북한과 관련한 테러리즘 연구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대(對)테러리즘과 관련한 경찰 역할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2010년 이전(以前)은 경찰 역할에 대한 논의가 적었지만, 2011년 이후(以後)는 경찰 역할에 대한 학술연구가 다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테러, 테러리즘, 대응, 대비, 경찰

1. 서론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로 인하여 한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에서 발생하는 전쟁, 국지도발, 테러리즘 등의 안보 위협 요인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만을 논의했던 시기도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에서 발생한 9.11 사태 이후, 국제테러리즘도 심각한 안보 위협 요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 재외국민, 해외근로자, 관광객 등의 신변 안전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국제사회에서 미국 9.11테러리즘이 시사(示唆)하는 바는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9.11 이전(以前)에 발생한 국제테러리즘과 비교하여 공격 수단과 기법 등의 측면에서 상당히 진화하였기 때문이다. 미국 9.11 사태 이후에 발생한 영국 다중이용시설 테러리즘, 스페인 대중교통시설 테러리즘 등

은 뉴테러리즘(New Terrorism)이라는 신조어와 국제테러조직 알 카에다(Al-Qaeda)를 국제사회에서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Taliban) 정권과 이라크 후세인(Saddam Hussein) 정권이 축출되었고, 알 카에다(AQ) 조직을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오사마 빈 라덴(Osama bin Laden)이 파키스탄에서 사살되면서 국제테러리즘이 진정(鎮靜)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AQ) 이라크 지부를 모체(母體)로 한 이슬람국가(IS: Islamic State)¹⁾는 이전의 국제테러조직과는 다르게 풍부한 인력(Men), 자금력(Money), 그리고 군수품(Munitions)의 '3M'을 모두 갖추었고,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Hamas)처럼 행정력도 갖추고 있어, 그 위협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현재 이슬람국가(IS)는 서방국가의 무고한 시민을 참수함과 동시에 미국, 프랑스 등의 대도시 대중교통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한 테러리즘 모의(謀議)를 계획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국제사회를 긴장시키고 있다(조선일보, 2014년 9월 27일 검색). 또한 이슬람국가(IS)는 미국이 주도(主導)하는 공습 참여 국가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무슬림 인구가 많은 동남아시아를 거점으로 확보하려고 있다. 이는 이슬람국가(IS)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이 결코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점에 이 연구는 언어네트워크 방법론을 활용하여 1981년부터 2014년까지 치안본부, 경찰청, 국가정보원, 국회도서관, 한국테러학회에서 발간하거나 소장하고 있는 대(對)테러리즘 관련 연구논문의 학문적 연구경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하여 대(對)테러리즘 관련 연구의 학문적 정체성 확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한국의 대(對)테러리즘 학술연구 연혁

한국의 대(對)테러리즘 관련 학술연구 연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석·박사학위논문 중에서 '테러리즘'을 주제로 한 최초의 연구는 1981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1) 이슬람국가(IS)는 2004년 한국인 김선일을 포함해 수많은 인질을 납치하거나 살해한 아부 무사브 알자르카위(Abu Mussab al-Zarqawi)의 '유일신과 성전단체(JTJ: Jama'at al-Tawhid wal-Jihad)'를 계승한 알-카에다 이라크 지부(AQI)를 모체(母體)로 하고 있다. 2006년부터 '무자히딘 최고회의(MSM)'로 통합되었고, 시아파 정권의 수니파 박해와 차별이 심해지면서 이라크 이슬람국가(ISI), 이라크와 시리아 이슬람국가(ISIS)로 개칭하면서 국제테러리즘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였다. 2014년 6월에 이라크 북부지대와 시리아 영토에서 군사적 거점을 확보한 이라크와 시리아 이슬람국가(ISIS)는 정식조직 명칭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슬람국가(IS)로 다시 개칭(再改稱)하였다. 알-카에다(AQ)와 이슬람국가(IS)는 수니파를 신봉하는 국제테러조직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이슬람국가(IS)가 알-카에다(AQ)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반인륜적이고 폭력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경향신문, 2014년 9월 14일 검색).

“북한 정치테러”를 주제로 한 석사학위논문이 있다. 한국테러학회는 2008년 7월 국민대학교에서 “21세기 테러와 대응방향”이라는 주제로 제1회 대(對)테러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고, 2008년 10월 「한국테러학회보」 제1권 제1호를 발간하였다.

내무부 치안본부는 1983년 11월 「대테러연구」를 처음 출간하였고, 내무부 경찰청은 1992년 12월 「대테러연구」를 재(再)발간하기 시작하였다.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는 2004년 1월 「대테러정책 연구논총」 제1호를 출간하였다가 2011년 2월 「대테러정책 연구논총」 제8호를 끝으로 더 이상 발간하지 않고 있다.

2. 선행연구의 검토

대(對)테러리즘 관련 학술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연구논문이 있다. 첫째, 이대성·김상원(2014: 127-143)의 “대(對)테러리즘 분야 연구경향분석: 국회도서관 학위논문을 중심으로”가 있고 둘째, 이대성·류상일(2014: 121-136)의 “대(對)테러리즘 분야 연구경향분석: 한국테러학회 학술세미나 자료집을 중심으로”가 있으며 셋째, 이대성·김상원(2014: 72-88)의 “대(對)테러리즘 분야 연구경향분석: 한국테러학회에서 발간한 한국테러학회보를 중심으로”가 있다. 넷째, 이대성·류상일(2014: 83-91)의 “대(對)테러리즘 분야 연구경향분석: 치안본부 대테러연구를 중심으로”가 있고 다섯째, 이대성·김상원(2014: 295-314)의 “대(對)테러리즘 분야 연구경향분석: 경찰청 대테러연구를 중심으로”가 있으며 여섯째, 이대성·류상일(2014: 53-69)의 “대(對)테러리즘 분야 연구경향분석: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 대테러정책 연구논총으로 중심으로”가 있다.

III. 자료와 분석방법

1. 언어네트워크 방법론

언어네트워크방법론은 최근 들어 국내 연구자들 사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연구방법론(배연석, 2001 ; 신준섭·김지수, 2011: 173-203 ; Lim, 2002: 328-366)의 일종으로, KrKwic(Korean Key Words In Context)프로그램과 NetMiner프로그램을 같이 병행하여 사용하는 분석기법이다(박한우·Leydesdorff, 2004: 1377-1388 ; 사이람, 2010 ; 김용학, 2004). 인간은 언어를 매개로 자신의 사고와 인식을 표현하며, 이를 통해 타인의 인식을 파악하기 때문에(Pinkley, 1990: 117-126) 언어에 담긴 메시지(message)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로 인하여 기존 연구에서도 언어에 담긴 메시지를 해석하는 전통적 내용분석기법이 많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전통적 내용분석방법론은 그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이 방법론은 연구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연구자가 임의로 만든 분석

항목에 너무 의존하게 되고, 노동 비용도 많이 들어가며, 외적 타당성이 제한되어 연구자 성향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었다(박한우·Leydesdorff, 2004: 1377-1388 ; Rice & Danowski, 1993: 369-397). 이러한 측면에서 전통적 내용분석기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등장한 것이 최근 국내 학자들 사이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언어네트워크 방법론(semantic network analysis)이다(박한우, 2006).

2. 분석 대상 및 분석방법과 절차

대(對)테러리즘 분야의 연구경향 분석을 위해 1981년부터 2014년까지 국회도서관, 한국테러학회, 치안본부, 경찰청, 국가정보원에서 발간한 학술연구논문 1,110편을 대상으로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 분석대상 논문

발행년도	분석대상논문 편수
1981-1990년대	182
1991-2000년대	157
2001-2010년대	558
2011-2014년대	213
합계	1,110

대(對)테러리즘 분야 연구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언어네트워크방법론의 연구절차를 3단계로 진행하였다. 1단계는 탐색적 자료 분석을 통하여 학술논문의 주제를 자료화 및 유형화 하였다. 2단계는 핵심 단어의 공통성과 차별성을 파악하기 위해 KrKwic 프로그램으로 1차적 분류를 시도하였으며, KrKwic 프로그램을 통해 도출된 핵심단어에 대한 행렬매트릭스 방정식을 완성하였다. 3단계는 이를 바탕으로 NetMine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핵심단어 간의 네트워크 연결망 내지 결합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사이람, 2010; 김용학, 2004). 왜냐하면, 언어와 언어가 결합하면 다른 의미의 새로운 언어를 확대 재생산하기 때문이다.

IV. 분석 결과

1. 연구 주제어 분석

1981년부터 2014년까지 대(對)테러리즘 관련 6개 분야(分野) 학술논문을 종합하여 연구주제어를 분

석하였다. 첫째, 1981년부터 2014년까지를 4구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테러”, “테러리즘”, “대응”, “국제” 등이 공통적으로 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로 나타났다. 이는 대(對)테러리즘 관련 학술논문 성격상 테러와 테러리즘에 관한 대응 연구가 많기 때문에 도출된 결과로 판단되고, 테러리즘의 발생 원인이 국제 정치 등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각 시기별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 1981-1990년대에는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개최로 인하여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 키워드 빈도가 높았고, “인질” 관련 키워드는 국제스포츠행사 개최시(時)에 인질테러리즘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며, “북한” 관련 키워드는 한국이 북한의 국가지원 테러리즘 피해 국가이기 때문이다.

ii) 1991-2000년대에도 “인질”, “북한” 관련 키워드 빈도가 높는데, 이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준-테러리즘(quasi-terrorism)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고, 북한이 대남적화 통일야욕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테러리즘을 악용했기 때문이다. 이 시기 특이사항으로 “대테러”라는 키워드 빈도가 갑자기 증가하였다.

iii) 2001-2010년대는 “9.11테러” 빈도가 매우 높았고, “사이버테러”, “뉴테러리즘” 키워드 빈도도 높았다. 이는 9.11테러로 인하여 대(對)테러리즘 연구 경향성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iv) 2011-2014년대는 “사이버”, “뉴테러리즘”에 대한 빈도는 지속적으로 높았고, 2001-2010년대와 비교하여 “초국가적”이라는 키워드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제테러리즘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기구와 국가”, “국가와 국가”, “국가와 비정부기구”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연구자들이 인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핵”, “자생테러” 등의 키워드 빈도도 높았는데, 이는 국제사회의 환경 변화와 함께 대(對)테러리즘 관련 연구 분야가 다양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 주제어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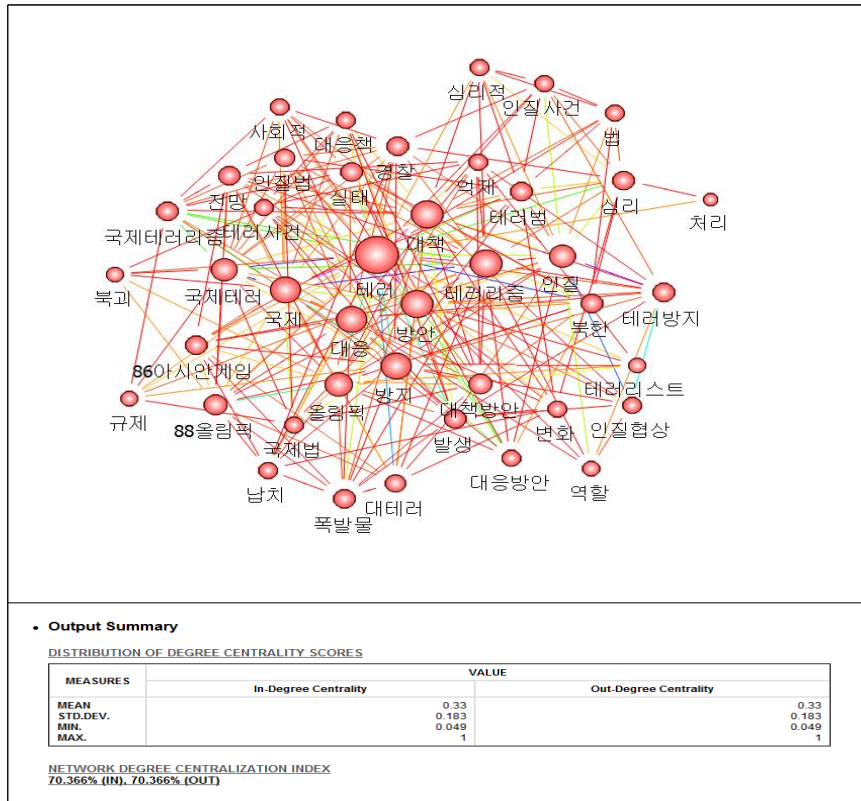
1981-1990년대		1991-2000년대		2001-2010년대		2011-2014년대	
빈도	핵심 주제어	빈도	핵심 주제어	빈도	핵심 주제어	빈도	핵심 주제어
71	테러	58	테러	271	테러	69	테러
27	테러리즘	34	테러리즘	154	대응	54	대응
24	인질	25	국제	96	테러리즘	35	테러리즘
20	대책	24	대응	81	대응방안	28	대응방안
15	대응	14	대응방안	84	9.11테러	19	한국
14	북한	11	인질	72	한국	18	대테러
12	88올림픽	10	북한	69	대테러	15	경찰
10	인질협상	9	대테러	45	사이버	12	미국
8	국제	9	실태	42	미국	12	북한
8	국제테러리즘	8	국제테러	41	국제	11	사이버테러
8	대응방안	6	국제테러리즘	32	사이버테러	9	방안
8	심리	6	대책	29	북한	8	국내
8	폭발물	6	한국	28	변화	8	발전
7	테러범	4	국제법	25	발전	8	일본
6	국제테러	4	대응책	25	방안	8	조직도
6	대테러	4	방안	24	뉴테러리즘	7	대비
6	방안	4	변화	20	위협	7	대책
4	국제법	4	실태분석	16	정책	7	변화
4	규제	4	인질협상	15	실태	7	위협
4	발생	4	정치	14	대책	7	초국가적
4	복귀	3	김정일	14	안보	6	뉴테러리즘
4	실태	3	대남한	14	이슬람	6	대응전략
4	심리적	3	대응조치	13	국가	6	대응체계
4	인질사건	3	문제점	13	국제테러	6	문제점
4	전망	3	민간항공기	13	대비	6	전쟁
4	테러사건	3	법	13	발전방안	5	개선방안
3	86아시아게임	3	분석	13	중동	5	다중이용시설
3	경찰	3	요인테러	12	대응전략	5	발생
3	납치	3	월드컵	12	생물테러	5	발전방안
3	대응책	3	인질사건	12	영향	5	정책
3	대책방안	3	테러방지	12	테러방지	5	테러범죄
3	방지	3	테러범	11	전쟁	5	책
3	법	3	테러사건	10	국제법	5	효과적
3	변화	3	항공기	10	국제테러리즘	4	경제적
3	사회적	3	환경	10	안보정책	4	경찰청
3	억제			9	경찰	4	대테러리즘
3	역할			9	대응방향	4	독일
3	인질범			9	테러위협	4	동향
3	처리			9	한반도	4	영국
3	테러리스트			8	국내	4	예산
3	테러방지			8	규제	4	자생테러
3	협상			8	미	4	중동

셋째, 1981-1990년대와 1991-2000년대는 “대응”, “법”이라는 키워드가 빈번하게 나타났고, 2001-2010년대와 2011-2014년대는 “대비”, “정책”이 자주 사용되었다. 이를 통하여 2000년 이전(以前)의 대(對)테러리즘 관련 학문 경향은 사후진압(事後鎮壓) 측면의 규범적 연구가 많았고, 2001년 이후(以後)에는 사전예방(事前豫防) 측면의 정책적 연구가 증가하였다.

2. 언어네트워크분석을 통한 대(對)테러리즘 패턴 분석

1) 1981-1990년대의 대(對)테러리즘 연구경향

1981-1990년대 한국의 대(對)테러리즘 관련 연구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언어네트워크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1981-1990년대 연결중심성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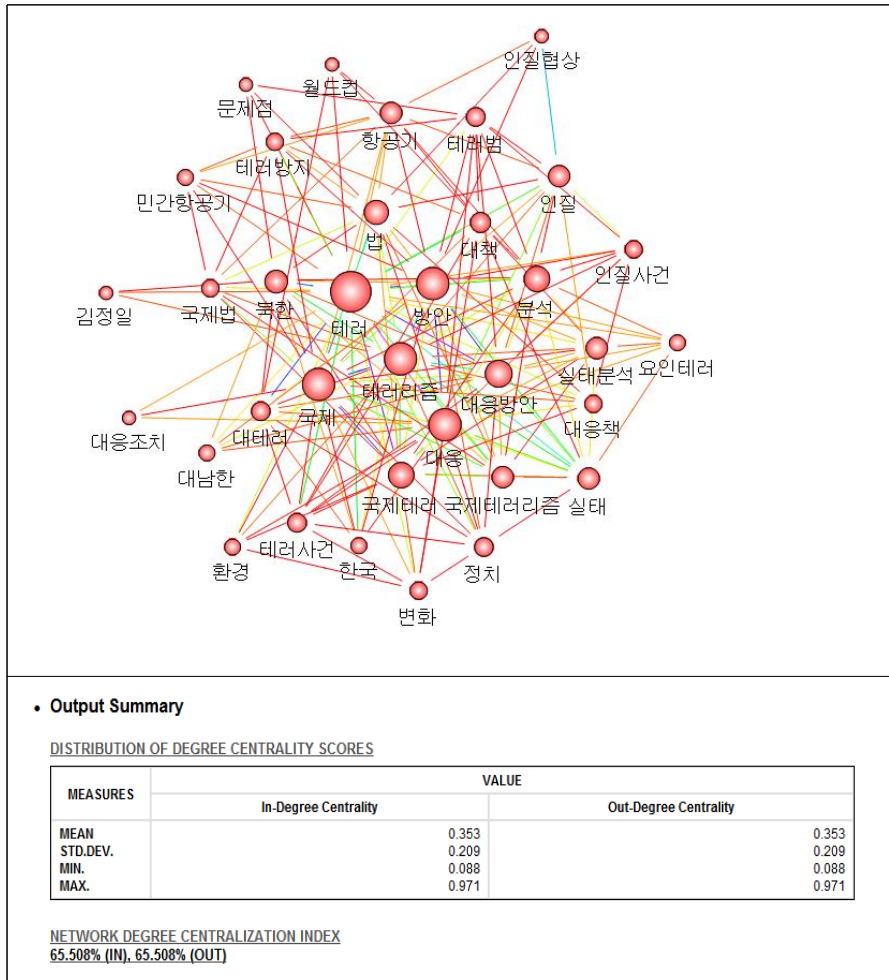
1981-1990년대에 대(對)테러리즘 관련 연구경향은 “테러”, “테러리즘”, “대응” 등의 연구주제어가 공통적으로 등장하였고, “인질”, “북한”,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이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표 3> 1981-1990년대 연결중심성 분석 값

구분	In-Degree Centrality	Out-Degree Centrality
테러	1	1
테러리즘	0.634146	0.634146
인질	0.439024	0.439024
대책	0.658537	0.658537
대응	0.585366	0.585366
북한	0.292683	0.292683
인질협상	0.195122	0.195122
국제	0.585366	0.585366
국제테러리즘	0.317073	0.317073
대응방안	0.219512	0.219512
심리	0.292683	0.292683
폭발물	0.292683	0.292683
테러범	0.292683	0.292683
88올림픽	0.341463	0.341463
국제테러	0.463415	0.463415
대테러	0.268293	0.268293
방안	0.634146	0.634146
올림픽	0.512195	0.512195
국제법	0.219512	0.219512
규제	0.170732	0.170732
발생	0.317073	0.317073
북괴	0.146341	0.146341
실태	0.292683	0.292683
심리적	0.195122	0.195122
인질사건	0.219512	0.219512
전망	0.292683	0.292683
테러사건	0.195122	0.195122
86아시안게임	0.292683	0.292683
경찰	0.317073	0.317073
납치	0.219512	0.219512
대응책	0.219512	0.219512
대책방안	0.365854	0.365854
방지	0.609756	0.609756
법	0.195122	0.195122
변화	0.219512	0.219512
사회적	0.219512	0.219512
억제	0.219512	0.219512
역할	0.146341	0.146341
인질범	0.268293	0.268293
테러리스트	0.146341	0.146341
테러방지	0.292683	0.292683

2) 1991-2000년대의 대(對)테러리즘 연구경향

1991-2000년대 연구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언어네트워크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2> 1991-2000년대 연결중심성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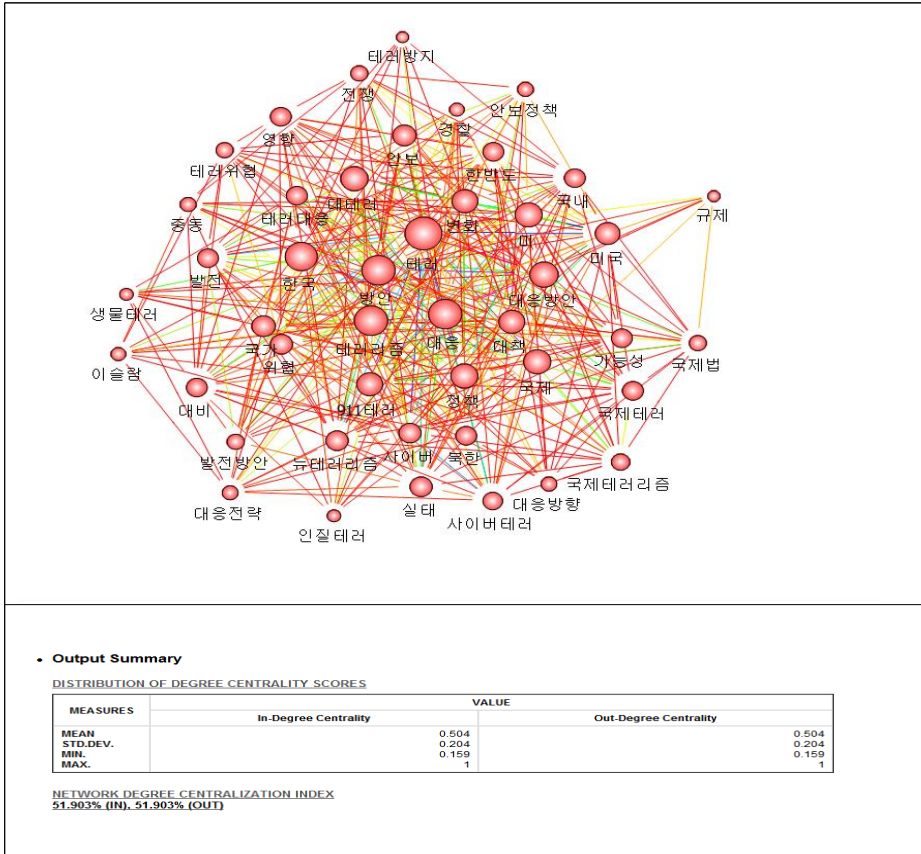
1991-2000년대 연구경향은 1981-1990년대와 유사하게 “테러”, “테러리즘”, “국제”, “대응” 등의 연구 주제가 중심성 분석값이 높게 나타났고, “인질”, “북한”, “법” 등도 빈번하게 사용되었으며, “월드컵”이라는 새로운 주제가 등장하기도 했다. 이는 1991-2000년대 대(對)테러리즘 연구경향이 1981-1990년대와 유사하게 “테러”와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 위주의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였고, 법·제도 측면의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북한”과 “인질테러”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고, 2002년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월드컵”과 같은 국제스포츠행사 테러리즘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새롭게 부각되었다.

<표 4> 1991-2000년대 연결중심성 분석 값

구분	In-Degree Centrality	Out-Degree Centrality
테러	0.970588	0.970588
테러리즘	0.705882	0.705882
국제	0.705882	0.705882
대응	0.735294	0.735294
대응방안	0.558824	0.558824
인질	0.352941	0.352941
북한	0.411765	0.411765
대테러	0.294118	0.294118
실태	0.382353	0.382353
국제테러	0.5	0.5
국제테러리즘	0.352941	0.352941
대책	0.323529	0.323529
한국	0.205882	0.205882
국제법	0.264706	0.264706
대응책	0.235294	0.235294
방안	0.735294	0.735294
변화	0.235294	0.235294
실태분석	0.352941	0.352941
인질협상	0.117647	0.117647
정치	0.294118	0.294118
김정일	0.088235	0.088235
대남한	0.176471	0.176471
대응조치	0.088235	0.088235
문제점	0.117647	0.117647
민간항공기	0.205882	0.205882
법	0.470588	0.470588
분석	0.5	0.5
요인테러	0.205882	0.205882
월드컵	0.117647	0.117647
인질사건	0.264706	0.264706
테러방지	0.264706	0.264706
테러범	0.294118	0.294118
테러사건	0.294118	0.294118
항공기	0.352941	0.352941
환경	0.176471	0.176471

3) 2001-2010년대의 대(對)테러리즘 연구경향

2001-2010년대 연구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언어네트워크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3> 2001-2010년대 연결중심성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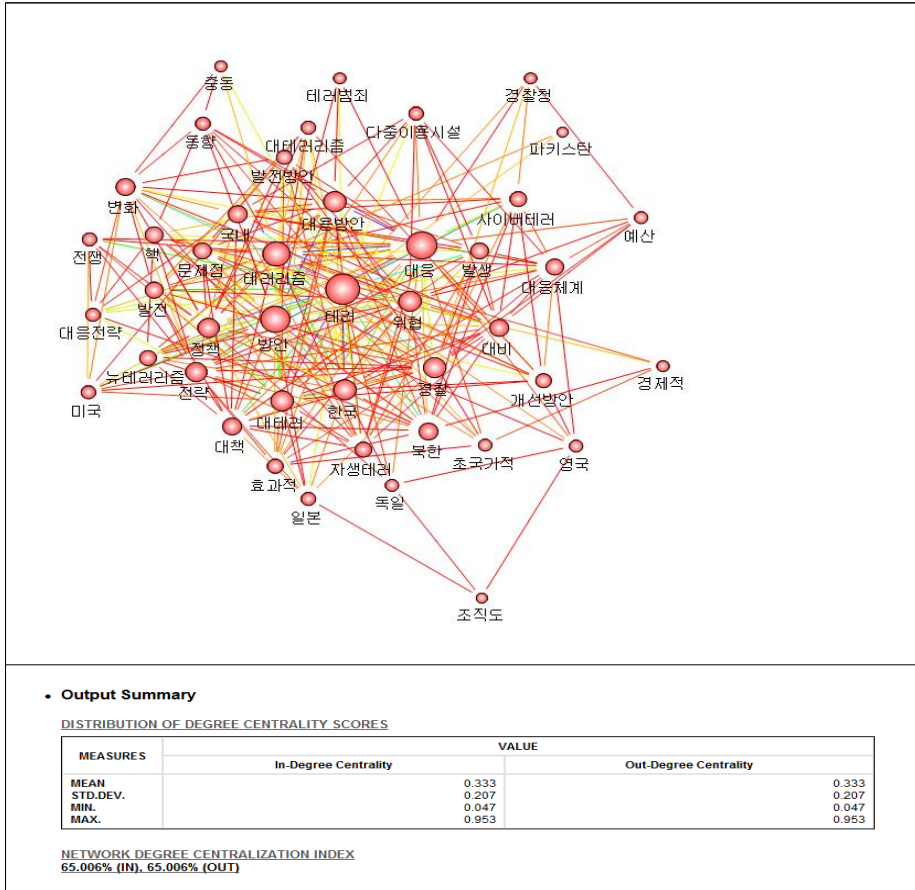
2001-2010년대 대(對)테러리즘 관련 연구경향을 분석해보면, 1991-2000년대 시기와 유사하게 “테러”, “테러리즘”, “대응”, “국제”, “한국” 등의 연구주제어 중심성 값이 높게 나타났고, “9.11테러”, “뉴테러리즘”, “정책”, “대비” 등이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이는 1991-2000년대 연구와는 상이하게 2001년 9.11테러리즘을 기점으로 대(對)테러리즘 관련 연구경향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9.11테러리즘 이후에는 뉴테러리즘에 대한 주제가 갑자기 등장하였고, 기존의 법제도적 측면의 연구보다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대(對)테러리즘 정책 위주의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2001년 이전(以前) 연구경향과 비교하여 사전예방(事前豫防) 측면의 테러리즘 대비(對備)에 대한 연구들도 등장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 2001-2010년대 연결중심성 분석 값

구분	In-Degree Centrality	Out-Degree Centrality
테러	1	1
대응	0.909091	0.909091
방안	0.909091	0.909091
테러리즘	0.886364	0.886364
한국	0.840909	0.840909
대응방안	0.727273	0.727273
국제	0.704545	0.704545
대테러	0.681818	0.681818
정책	0.681818	0.681818
미	0.681818	0.681818
911테러	0.659091	0.659091
대책	0.659091	0.659091
변화	0.636364	0.636364
미국	0.590909	0.590909
국가	0.568182	0.568182
안보	0.545455	0.545455
뉴테러리즘	0.522727	0.522727
위협	0.522727	0.522727
사이버	0.5	0.5
국제테러	0.477273	0.477273
국내	0.477273	0.477273
북한	0.454545	0.454545
대비	0.454545	0.454545
영향	0.454545	0.454545
한반도	0.454545	0.454545
가능성	0.454545	0.454545
테러대응	0.454545	0.454545
사이버테러	0.431818	0.431818
국제테러리즘	0.409091	0.409091
전쟁	0.363636	0.363636
국제법	0.363636	0.363636
충동	0.295455	0.295455
안보정책	0.295455	0.295455
경찰	0.272727	0.272727
이슬람	0.25	0.25
생물테러	0.227273	0.227273
인질테러	0.227273	0.227273
테러방지	0.181818	0.181818
규제	0.159091	0.159091

4) 2011-2014년대의 대(對)테러리즘 연구경향

2011-2014년대 학문적 연구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언어네트워크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4〉 2011-2014년대 연결중심성 분석결과

2011-2014년대 대(對)테러리즘 관련 연구경향을 고찰해보면, 2001-2010년대와 유사(類似)한 점은 “테러”, “대응”, “테러리즘”, “대테러” 등의 연구주제어 중심성 값이 높게 나타났고, 2001-2010년대와 상이(相異)한 점은 “경찰”, “전략”, “정책”, “대비”, “자생테러” 등의 새로운 주제가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이는 2001-2010년대와 2011-2014년대의 연구경향이 “법·제도” 측면의 연구보다는 “정책” 측면의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사전예방(事前豫防) 차원의 테러리즘 대비(對備) 관련연구가 더욱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01년 9.11테러리즘을 기점으로 등장한 “뉴테러리즘” 이후(以後) 연구는 “자생테러”, “사이버테러” 등이 있는데, 이는 테러리즘에 대한 연구경향이 더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하여 대(對)테러리즘 관련 연구가 독자적인 학문 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본다.

<표 6> 2011-2014년대 연결중심성 분석 값

구분	In-Degree Centrality	Out-Degree Centrality
테러	0.953488	0.953488
대응	0.837209	0.837209
방안	0.790698	0.790698
테러리즘	0.72093	0.72093
한국	0.534884	0.534884
위협	0.534884	0.534884
대응방안	0.511628	0.511628
대테러	0.511628	0.511628
경찰	0.511628	0.511628
전략	0.488372	0.488372
정책	0.465116	0.465116
북한	0.395349	0.395349
대비	0.395349	0.395349
변화	0.372093	0.372093
발전	0.348837	0.348837
대응체계	0.348837	0.348837
문제점	0.348837	0.348837
발생	0.348837	0.348837
핵	0.325581	0.325581
자생테러	0.302326	0.302326
사이버테러	0.27907	0.27907
뉴테러리즘	0.27907	0.27907
개선방안	0.255814	0.255814
발전방안	0.255814	0.255814
효과적	0.232558	0.232558
미국	0.209302	0.209302
일본	0.209302	0.209302
대응전략	0.209302	0.209302
다중이용시설	0.209302	0.209302
대테러리즘	0.209302	0.209302
동향	0.209302	0.209302

V. 결론

1981년부터 2014년까지 국회도서관, 한국테러학회, 치안본부, 경찰청, 국가정보원에서 발간하거나 소장하고 있는 대(對)테러리즘 관련 학술논문의 모든 연구주제를 10년 단위로 구분하여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7> 연구결과의 요약

구분	1981-1990년대	1991-2000년대	2001-2010년대	2011-2014년대
핵심 연구 주제	테러 테러리즘	테러 테러리즘	테러 테러리즘	테러 테러리즘
학문적 접근법	법·제도적 측면	법·제도적 측면	정책적 측면	정책적 측면
해결을 위한 대처 방식	대응위주	대응위주	대응+대비	대응+대비
시대상 반영연구	올림픽 아시안게임	월드컵	9.11테러 사이버테러	자생테러 사이버테러
대북(對北) 관련 연구 중요도	높음	높음	중간	중간
대(對)테러리즘 관련 경찰 역할 연구	적음	적음	적음	많음

첫째, 1981년부터 2014년까지 “테러”와 “테러리즘”이 핵심 주제로 등장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테러”와 “테러리즘” 연구가 가장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2000년 이전(以前)에는 “법·제도” 측면의 논의가 많았고, 2001년 이후(以後)에는 “정책” 측면의 학술연구가 활성화되었다.

셋째, 2000년 이전(以前)의 연구는 사후진압(事後鎮壓) 측면의 “대응(對應)”에 초점이 맞추어졌고, 2001년 이후(以後)는 사전예방(事前豫防) 측면이 강조된 “대비(對備)”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넷째, 시대상을 반영한 연구주제를 살펴보면, 1981-1990년대는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로 인하여 “올림픽”, “아시안게임” 관련 연구들이 다수를 차지하였고, 1991-2000년대는 2002년 월드컵에 대비(對備)하기 위하여 “월드컵” 관련 연구가 증가하였다. 2001-2010년대는 미국 “9.11테러”와 관련된 연구가 급증하였고, 2011-2014년대는 테러리즘과 관련된 연구주제가 “자생테러”, “사이버테러” 등으로 다원화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째, 대북(對北) 관련 연구를 검토해보면, 2000년 이전(以前)의 연구는 북한의 국가지원 테러리즘 위협성에 대한 연구가 다수를 이루었지만, 2001년 이후(以後)는 북한과 관련된 테러리즘 연구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테러리즘과 관련된 경찰 역할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2010년 이전(以前)은 경찰 역할에 대한 논의가 적었지만, 2010년 이후(以後)는 경찰 역할에 대한 학술연구가 다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학계와 국가기관에서 발간하거나 소장하고 있는 대(對)테러리즘 관련 학술논문 1,110편을 대상으로 하여 대(對)테러리즘 분야 연구경향분석을 하였다. 이는 개별(個別) 학회나 관할(管轄)이 다른 국가기관의 일부 학술논문만을 분석한 대(對)테러리즘 분야 연구경향분석의 한계를 보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대(對)테러리즘 관련 연구의 학문적 정체성 확립과 향후에 대(對)테러리즘 관련 연구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김용학. 2004. 사회 연결망 이론. 서울: 박영사.
- 박한우, Leydesdorff, L. 2004. 한국어 내용분석을 위한 KrKwic 프로그램의 이해와 적용: Daum.net에 서 제공된 지역혁신에 관한 뉴스를 대상으로.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6(5): 1377-1388.
- 박한우. 2006. 한국어 메시지의 내용분석을 위한 KrKwic 소프트웨어의 소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특 강자료집.
- 배연석 역. 2001. 미디어 내용분석 방법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사이람. 2010. 넷마이너에 의한 사회네트워크 분석. 서울: 사이람.
- 이대성, 김상원. 2014. 대(對)테러리즘 분야 연구경향분석: 국회도서관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사회과학 연구*. 21(2): 127-143.
- 이대성, 김상원. 2014. 대(對)테러리즘 분야 연구경향분석: 한국테러학회에서 발간한 한국테러학회보를 중심으로. *한국테러학회보*. 7(2): 72-88.
- 이대성, 김상원. 2014. 대(對)테러리즘 분야 연구경향분석: 경찰청 대테러연구를 중심으로. *한국민간경 비학회보*. 13(3): 295-314.
- 이대성, 류상일. 2014. 대(對)테러리즘 분야 연구경향분석: 치안본부 대테러연구를 중심으로. *융합보안 논문지*. 14(3): 83-91.
- 이대성, 류상일. 2014. 대(對)테러리즘 분야 연구경향분석: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 대테러정책 연구논총을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논집*. 10(4): 53-69.
- 이대성, 류상일. 2014. 대(對)테러리즘 분야 연구경향분석: 한국테러학회 학술세미나 자료집을 중심으 로. *한국위기관리논집*. 10(6): 121-136.
- 신준섭, 김지수. 2011.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주민의 갈등 프레임 분석: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5(3): 173-203.
- Lim, Elvin T. 2002. Five Trends in Presidential Rhetoric: An Analysis of Rhetoric From George Washington to Bill Clinton. *Presidential Studies Quarterly*. 32(2): 328-366.
- Pinkley, R. L. 1990. Dimensions of Conflict Frame: Disputant Interpretations of Conflic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5: 117-126.
- Rice, R. E. and J. A. Danowski. 1993. Is It Really Just Like a Fancy Answering Machine? Comparing Comments and Semantic Networks about Voice Mail. *Journal of Business Communication*. 30: 369-397.

이대성: 동국대학교에서 형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 한국의 테러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2004년), 가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전임강사를 역임하고, 현재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테러리즘과 관련된 대(對)테러법률, 대(對)테러정책 등이며, 주요 논문은 “북한에 의한 테러유형과 대응방안(2004)”,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2005)”, “테러리즘에 관한 규범학적 이해와 접근(2007)”, “테러범죄 동향분석과 대응방안에 관한 헌법적 연구(2008)”, “해외인질 테러범죄에 관한 법적 연구(2009)”, “한국을 대상으로 한 뉴테러리즘의 분석 및 정책적 제언(2010)”, “국제스포츠이벤트 테러리즘의 분석과 향후전망(2011)”, “북한의 대남테러리즘 분석과 향후전망: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집권기를 중심으로(2012)”, “북한의 전자기파(EMP)위협에 대한 검토(2013)” 등이 있다(dorian3145@daum.net).

김상원: 미국 오클라호마주립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2003)하였으며, 현재 동의대학교 법정대학 경찰행정학부에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범죄사회학, 일탈행동, 청소년비행, 범죄예방을 위한 공공정책 등이다. 최근의 발표논문으로는 “러시아의 사회변동과 범죄”(2006), “아동과 청소년비행의 원인비교”(2007), “전환기 러시아의 사회변동과 자살”(2009) 등이 있고, 저서로는 「현대사회와 범죄」(공저, 2007) 등이 있다. 주요경력으로는 미국 하버드대학교 박사후 연구원(2004), 미국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Research Associate(2004) 으로 활동하였다(sangkim@deu.ac.kr).

류상일: 충북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고(논문: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체계, 2007년), 세한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전임강사, 조교수를 거쳐, 현재 동의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재난관리, 소방행정, 재해구호, 사회네트워크 등이 주요 관심분야이며, 주요 저서로는 재해구호복지론(2012, 공저), 소방행정학 개론(2011, 공저), 주요 논문으로는 “행정학에서 재난관리분야의 학문적 연구경향(2007)”, “네트워크 관점에서 지방정부 재난대응과정 분석: 미국의 허리케인과 한국의 태풍 대응사례를 중심으로(2007)”,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네트워크 분석(2008)”, “소방공무원의 스트레스요인과 직무만족간의 관계(2009)”, “소방학의 학문적 정체성 확립을 위한 소방정책론 정립방안(2010)”,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효율적 소방력 개선방향(2011)”, “한국위기관리 연구경향 분석(2012)”, “한국 위기관리 연구경향분석Ⅱ: 소방행정 분야를 중심으로(2013)”, “소방방재청장의 정책 가치지향을 통해본 재난관리정책의 변화추이(2014)” 등이 있다(samuel@deu.ac.kr).